

동시통역의 관점에서 본 청중질의 특성 논의

오 미 형
(이화여대)

1. 서론

통역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대화 참여자들 간에 원활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로, 이를 수행하는 통역사는 복수 언어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통역의 기술, 서로 다른 문화 및 배경에 대한 이해와 조정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질(Gile 1995)이 설명한 바와 같이 통역은 여러 가지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하는 인지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통역사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인지 자원을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통역은 철저히 통역사 개인의 역량의 결정적 영향을 받지만, 외부 요인의 영향 역시 상당하다. 특히 출발어 발화 이해와 도착어 발화 생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통역은 동시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더욱 외적 요인에 취약할 수 있다. 외적 요인은 속도, 소음, 발화, 출발어 등 다양한 층위에서 비협조적 상황(unfavorable conditions)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경험이 많은 통역사들에게

조차 영향을 끼쳐 다양한 통역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Gile 1997:197).

본 연구는 통역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통역사 외적 요소 중 출발어 발화 자체에 초점을 두고 이의 특징을 동시통역 수행의 어려움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때 출발어 발화로 청중의 질의응답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통역이 어렵다고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고 즉흥적인 발화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동시통역 수행의 관점에서 출발어 발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논의하는 것은 청중의 질의에 대한 예측(anticipation)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초보 통역사가 출발어 발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나아가 이해를 위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동시통역과 출발어 발화

카데(Kade 1968, Pöchhacker 2004: 25 재인용)에 따르면 통역은 재검토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단 한번 제시되는 출발어 발화에 대해 시간적 압박 아래에서 수정 기회 없이 도착어 발화를 생산해 내는 즉시성을 갖는 행위이다. 출발어 발화 이해와 도착어 발화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통역은 더욱 복잡한 과정이 수반된다. 동시통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지 활동은 통역사의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해진다고 본 질(Gile 1995)은 ‘동시통역=듣기 및 분석 노력+발화 생성 노력+단기기억 노력+조율 노력’이라는 노력 모델(effort model)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력 모델에 의하면 통역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통역을 위해 요구되는 용량보다 커야 원활한 통역이 이루어지는데, 통역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나 발화 등 각각의 과업에 대해 통역사가 자신의 용량을 적정하게 배분하며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성공적인 통역을 위해서는 통역 과정의 각 과업에서 요구되는 용량이 적거나 이를 처리하는 통역사의 용량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통역사가 보유하고 있는 용량은 개인적 차이는 있으나 모든 통역사에게 한정되어 있고 요구되는 용량은 통역사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발표자의 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 출발어 발화를 통역사가 이해했다더라도 단기 기억과 도착어 발화 생성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될 수 있으며, 반대로 정상적인 속도의 발화라 하더라도 출발어 발화 구조 자체가 매우 복잡하거나 해당 의사소통 세팅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다루는 경우 통역사는 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요구되는 용량이 커서, 즉 통역사 외부의 여러 요인에 의해 동시통역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 예측(anticipation)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예측이란 발화자가 출발어로 발화를 하기 이전에 통역사가 도착어로 단어 또는 일련의 단어로 구성된 발화를 생성하는 것으로(Van Besien 1999: 250), 동시통역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Setton 1999: 53). 체르노프(Chernov 2004)는 동시통역이 가능한 기제 자체를 개연성 예측(probability anticipation)이라고 보았다. 즉, 발화는 중복성을 가지고 있고 통역사는 중복성을 바탕으로 출발어 발화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개 되는지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중복성이란 정보성(informality)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현재의 발화는 앞선 발화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이후의 발화 역시 현재의 발화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체르노프(Chernov 2004: 91-96)는 중복성을 객관적 의미 중복성(objective semantic discourse redundancy)과 주관적 의미 중복성(subjective sense redundancy)으로 나누었는데, 객관적 중복성은 음절, 단어, 구, 발화, 담화 등에서 발생하는 반면 주관적 중복성은 인지, 화용적 상황 맥락상 추론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발화의 주제가 한정되어 있거나 결속성이 높은 구조로 이루어진 일관성 있는 발화에 대해서는 보다 원활한 동시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측은 바로 이러한 중복성을 기반으로 통역사가 발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발화의 내용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동시에 이 과정을 제어하면서 이루어진다(De Bot 2000: 74). 즉, 통역사는 출발어 발화에 대한 의미 및 통사적 정보를 기반으로 출발어 발화에서 주어지는 어휘나 어휘 조합 등의 단위를 힌트로 삼아 발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예측하고, 더불어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해당 소통의 상황에서 입수하는 상황 지식에서 언어외적인 정보를 얻어 이러한 예측을 정교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측은 분명 통역 수행의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통역사가

언어적·비언어적 힌트를 더 많이 발견할수록 해당 발화를 예측하고 이해할 가능성은 높아지므로(Seeber 2011: 66), 통역사는 출발어 발화에 대한 언어적·언어외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언어적·언어외적 지식은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데 간단하게는 출발어의 연어(collocation), 관용어, 해당 주제에 대한 사전지식(Daró 1994), 발표자와 청중에 대한 지식, 출발어 텍스트 타입에 대한 이해(Dillinger 1994)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본 연구의 대상인 청중질의 역시 질의가 갖는 출발어 특징, 화용적 특징, 텍스트 타입으로서의 특징 등을 이해한다면 질의를 통역할 때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2.2 한국어 질의

한국어의 문장 유형은 종결 어미에 따라 일반적으로 평서문, 의문문¹⁾, 명령문, 청유문으로 나눌 수 있다(이익섭, 채완 1999: 225). 이중 의문문은 화자가 자신은 모르나 청자는 안다고 전제하는 정보를 청자에게 요구하는 문장으로, 의문문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청자의 반응, 즉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특정 발화가 질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용 조건과 형식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내용 조건은 발화수반행위로서 작동하는 것이며 형식 조건은 의문사나 의문 어미의 사용 등 문장의 생김새가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은숙 2011: 34). 설(Searle 1969: 66)은 의문이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로 작용하려면 화자가 정보를 원하고 있고(sincerity rule), 화자가 해당 의문에 대해 답을 알지 못하고 화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청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preparatory rule), 발화가 청자로부터 정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시도되는 것(essential rule)이라는 규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질의를 위한 발화는 청자로부터 특정 반응을 이끌어 낼 것을 목

1) 표준국어대사전은 ‘질의’를 의심하거나 모르는 점을 묻는 것으로, ‘의문’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 사전적으로는 궁금한 것을 묻는다는 점에서 같으나, 실사용에서는 질의가 보다 공식적 장소나 사안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두산 백과사전) 본 논문에서 다루는 질의응답 시간 중 청중의 질문은 ‘질의’로 칭함. 그러나 기존 연구 언급 시 해당 연구에서 ‘의문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이를 그대로 사용함.

적으로 하고 해당 언어의 정해진 형식을 갖추어 구현된다.

질의가 실현되는 형식상 장치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억양, 의문 태그, 의문 어미, 그리고 의문사이다(박영순 1991: 55). 이 중 의문사는 “Where do you want to go?”, “어디를 가고 싶니? 와 같이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서 해당 발화가 질문임을 알려주는 담화표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담화표지란 ‘문맥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자가 발화를 해석하는 것을 도와주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부가적 요소(Aijmer 2002, 김명희 2005: 42 재인용)’로, 한국어에도 다양한 의문사가 담화표지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체언 의문사, 용언 의문사, 수량 표현 의문사, 관형사 의문사를 들 수 있는데(서정목 1987: 272-301), 명사, 대명사, 수사어에 해당하는 체언을 이용한 의문사는 ‘누구’, ‘무엇’, ‘언제’, ‘어디’가 대표적이며, 동사나 형용사처럼 문장 안에서 서술의 역할을 담당하는 용언을 이용한 의문사는 ‘어떠하-’와 ‘어떻-’이, 수량을 표현하는 의문사는 ‘몇’과 ‘얼마’가, 관형사 의문사로는 ‘어느’, ‘무슨’, ‘왜’이, 부사 의문사는 ‘왜’, ‘어찌’가 있다. 이처럼 의문사가 포함된 발화는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을 형성하게 된다(이영민 1998: 88-89).

한편, 의문사 없이 관정이나 선택을 요구하는 의문문의 경우는 의문종결어미가 주로 활용된다. 문장의 처음부터 해당 문장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종결어미를 통해 문장의 종류가 표현되기 때문에 끝까지 말을 들어보아야 해당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송창선 2010: 145).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Did you have dinner?” 라고 하면 첫 단어부터 의문문임을 알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밥 먹었니?” 라고 하여 문장의 끝이 되어야 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 의문형 어미로는 ‘-(으)냐/느냐’, ‘-(으)니까/는가’, ‘-니’, ‘-소/(으)오’, ‘-(으)르까’, ‘-(으)르쵸냐’, ‘-(으)니까요/는가요’, ‘-(으)르까요’, ‘-습니까’, ‘-어/아’, ‘-어요/아요’, ‘-지’, ‘-지요’, ‘-(으)르래’, ‘-(으)르래요’ (송창선 2010: 150)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발화가 갖추고 있는 형식을 통해 청자는 해당 발화에 담긴 질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의문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도 내용 요건이 불충분하거나 형식은 불충분하나 내용 요건은 갖추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고은숙 2011: 39). 이는 여러 가지 화용적 기능 별로 특정 통사 형식이 존재해서 주장은 서술문, 질문은 의문문, 명령은 명령문과 같이 해당 형식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간접화행이 수행되기 때문이다. 의문문이 가진 간접화행의 기능은 크게 제보와 지령으로 나눌 수 있다. 박혜경(1987)에 따르면 제보의 행위를 하는 의문문은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의문문의 형식을 빌어 진술하는 단정적 진술, 화자가 완전하게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각을 청자에게 전하는 추정적 진술, 화자가 거절이나 반박 등 자신의 의도를 담아 진술하는 의도적 진술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지령적 행위로서의 의문문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로부터 특정 행동을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명령과 요청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간접화행의 발화 의도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한민 2010: 114).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청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공손한 표현을 하기 위해 질의의 형식을 빌어 화자의 의도를 약화된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반대로 강조는 화자의 감정이나 주장, 비난 등을 전달할 때 추가적인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도 의문문이 형식을 빌어 이러한 의도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질의는 궁금한 것을 묻는다는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의문사나 의문 종결어미 등과 같은 형식을 통해 구현되며, 이는 담화표지로 작동해 발화 의도와 내용을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형식 요건과 별개로 다양한 간접화행이 수행되기 때문에 상황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상 특징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다.

3. 연구

3.1 연구방법

질의응답 세션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com)에서 ‘질의응답’, ‘종합토론’, ‘국제회의’, ‘청중’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검색순위 상위부터 청중의 한국어 질의 100건을 전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표자, 청중, 사회자 또는 토론자 등 대부분의 국제회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팅이 갖추어진 영상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자회견과 같이 기자가 질문자인 회의와 정치적 목적의 회의는 일반

적인 회의의 청중질의와 성격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특정 회의나 주제의 특징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각 회의에서 최초 2명의 청중 발언만을 수집하였고, 청중의 개인적 특성을 배제하기 위해 청중 1인이 여러 차례 발언을 한 경우 해당 청중의 최초 발언만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총 53건 회의에서 청중 100명의 발화 100건이다²⁾. 동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은 말로 이루어진 회의를 글로 기록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글로 기록된 경우 실제 발언보다 정돈되거나 발언의 여러 구어적 특성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크게 질의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달성하기 위해서 질의는 특정한 형식을 갖추고, 이러한 형식을 참고하여 청자는 화자의 의중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최초의 청자 역할을 수행하는 통역사 역시 출발어 발화가 갖춘 형식을 통해 해당 발화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한 다른 언어의 형식을 입혀 청자에게 전달해야만 출발어 발화의 발화수반행위를 보존할 수 있다. 따라서 청중의 질의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통역사에게 청중질의의 목적을 파악하고 발화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도 질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발화가 있으며, 반대로 형식을 갖추었으나 내용상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간접화용의 기능을 하는 질의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질의의 발화를 기대하고 있던 최초의 청자인 통역사는 발화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발화의 내용도 분석하였다.

3.2 분석 및 논의

3.2.1 형식

형식에 대해서는 의문사 및 의문 종결어미, 불완전 문장, 문장 종류를 분석하였다. 의문사 및 의문 종결어미는 해당 문장이 의문문임을 보여주는 가장 대

2) 회의별로 2건의 발화를 수집했으나, 질문이 1건만 이루어진 회의는 1건만 포함했으므로 데이터 수집의 대상된 회의의 숫자는 50이 아니라 53임.

표적인 형식요건이다. 먼저 의문사는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에 사용되는데, 분석한 결과 총 100건의 발화 중 의문사를 사용한 발화는 39건으로 1/3가량만이 의문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의문사는 ‘어떻게’로 15회 사용되었고, ‘어떤’이 16회, ‘어느’가 3회, ‘무엇’, ‘어디’, ‘몇’, ‘누가’, ‘왜’가 각각 1회씩 사용되었다. 상당히 다양한 의문사가 존재하는데도 실제 청중의 질의에서는 의견, 성질, 형편,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묻는 의문사³⁾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의문사를 사용한 청중의 질의는 구체적인 것을 묻기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등과 같이 발표자의 견해를 폭넓게 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1: 청중질문의 형식〉



<예1>

그 연대를 재구축하는 방법으로서 시를 말씀하셨잖아요...중략...근데 그게 어떻게 연대를 재구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봉기』저자 프랑코 베라르디 화상강연회, 2013년)

<예2>

한국에서는 그런 그 터미널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으로만 쓰이고...중략... 사람들이 그 머무는 공간으로 더 많이 쓰일 수 있게 어떻게 하는지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공간문화의 날 기념식 GMP 상해 지사장 발표, 2012년)

의문사의 위치는 <예1>과 같이 문장의 앞부분에 제시되는 경우는 상당히

3) ‘어떠한’은 ‘어떠하다’의, ‘어떤’은 ‘어떻다’의 관형사형이며, ‘어떠하다’와 ‘어떻다’는 본말과 준말의 관계이며, ‘어떠하다’와 ‘어떻다’는 모두 의견,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찌되어 있다는 의미.

적고, <예2>처럼 문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문장의 거의 끝부분까지 듣고 난 이후에야 해당 문장이 의문문임을 알 수 있다. 의문사는 분명하게 발화자의 의도가 질문임을 알려주고, 의문의 초점이 되는 사태나 사물을 제시하기 때문에 해당 발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표지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통역사가 해당 발화에 대해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출발어로 하고 영어를 도착어로 하는 동시통역의 경우, 한국어는 의문문이 고유의 어순을 가지지 않으므로⁴⁾ 해당 발화가 의문문임을 이해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반대로 고유의 의문문 어순이 존재하는 영어로 도착어 텍스트를 동시에 구성해야 하므로 출발어 발화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한편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고 의문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맞다’, ‘틀리다’를 고르도록 요구하는 판정의문문이나 선택의문문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때 대표적 의문형 종결어미 중에서는 분석한 데이터 중에는 ‘는가요’ 2회, ‘르까요’ 1회, ‘습니까’ 2회, ‘있는가’ 1회, ‘아닌가’ 1회, ‘는지’가 13건 사용되어 ‘-지’에 쓸림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⁵⁾.

<예3>

바쁘네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살길은 IT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중략...황동문이 이 비례대표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IT를 이끄는데 좀 보석
 같은 역할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CTO 황창규 창조포럼 특강, 2012년
 8월)

이처럼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고 종결어미를 통해 의문문을 구현하는 경우에도 문장의 끝부분에서야 해당 발화의 목적이 드러난다. 한편 영어에서는 의

4) 한국어에서는 의문사가 반드시 문두의 위치에 와야 한다는 제약이 없으며 심지어 의문사가 문두에 왔을 때 오히려 문장이 덜 자연스럽게까지 함. 또한 한국어에서는 의문문이 평서문의 어순과 구별되는 의문문 고유의 어순을 가지지 않음(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5: 31).

5) 추후 문장의 형식에서도 논하겠지만, 의문 종결어미를 사용한 경우에도 ‘습니까’로 완결된 의문문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문 종결어미로 문장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겹문장을 통한 요청문의 형태를 보임.

문문을 사용하지 않는 의문문에서도 동사를 문두로 위치시켜야 하므로 의문문이 포함된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담화표지 위치가 달라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한편, 앞선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의 발화가 불완전 문장으로 종결되고 있었다. 물론 <예3>과 같이 의문 종결어미 이후에 말끝을 흐리는 정도의 불완전 문장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청자의 이해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발화 중에서 청중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설명을 요청하는 등의 핵심 문장 중 다수가 주성분 중 일부가 생략된 불완전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문장성립에 필수적인 요소인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인데 이중 하나가 빠지면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⁶⁾. 생략이 많은 한국어의 특성상 불완전 문장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중의 질의는 사전 준비가 없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핵심성분이 생략되는 경우 통역사를 포함한 청자의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 아래의 <예4>는 무엇을 수용하는 것인지, 제어의 대상이 무엇인지 핵심성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사실상 누락되어 있어서 해당 목적어에 대해 추가적인 추론을 해야만 이해가능하다.

<예4>

첫 번째는 IT기술을 속도가 무한히 확장이 되는데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제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이 있다.(농식품분야 정보화 촉진토론회, 2011년)

청중질의의 형식면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물음표로 끝나는 완전한 형태의 의문문은 한 두건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의 발화가 요청문이나 화자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음을 진술하는 형식을 가진다는 점이다.

<예5>

주민의 대표로 해외 동포로 어떻게 하겠다, 뒤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 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외국민참정권 공청회, 2012년)

6) 주성분이라고 해도 분명하게 추론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으나, 목적어 등은 매우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문장 필수 성분이라서 생략이 불가함(남기심 2011).

<예6>

2년 전에 평가에 대해서...중략...그냥 시작하는 의지만 보여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사례관리 세미나, 2012년 4월)

<예7>

그게 결정되는 과정이나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인사이트 국제 컨퍼런스, 2012년 7월)

<예5>는 청자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의 발화이지만, 형식면에서는 “무엇입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같이 의문문 형태를 취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요청문으로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예6>과 <예7>은 궁금하거나 듣고 싶다는 화자의 의향을 표시하여 보다 간접적으로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요청, 대답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대답을 요청하거나, 화자의 궁금증을 진술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청자에 대해 조금 더 공손함을 표시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형식면에서 의문사나 의문 종결어미 외에 화자가 아예 발화 목적과 방향에 대한 명시적 표지를 제시하는 경우도 일부 찾아 볼 수 있었다.

<예8>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까 그 스마트 문제 얘기하셨어요. (한국 원자력연구소장 한국핵발전사 강연, 2010년)

<예9>

질문 아니어도 돼요? 제가 한번 학회 논문을 작년에 다 뒤져본 적이 있습니다...중략...과제도 몇 개 했는데 그쪽으로 정보도 좀 드리고 커멘트 좀 드리고 싶습니다. (UX/HCI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13년)

<예10>

그 저 질문 좀 하고 싶은데 그 저 화학섬유 산업을 육성하게 된 계기가 어 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대체 하려는 동기에서 이런지 아니며는 이게 어쨌건 여러가지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육성할만하다고 봐서 그런건지... 중략... 한 것은 다음 단계의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 것이니까 이걸 같다가 당시 정부가 이거를 육성을 할 때에 어떤 중점을 두고 했느냐를 밝히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는데 중요할 것 같구요.중략....
 그런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구분을 해서 봐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경제발전학회 학술대회, 2011년)

<예8>과 <예9>는 화자가 서두에서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발화를 이어가고 있어서, 청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발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예측을 하기 쉽다. 그러나 <예10>과 같이 사례에 있어서는 화자가 제시한 발화의 목적과 실제 발화 내용이 다르게 전개되기도 한다. <예10>의 화자는 질문을 하겠다고 밝혔고, ‘-지’ 종결어미를 통해 선택의문문의 형식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발표자의 논리에 대해 반박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한 바와 같이 질의응답 시간에 이루어지는 청중의 발화는 궁금한 것을 묻는다는 일차적인 목적 아래 이루어지지만, 실제 의문사나 의문 종결어미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의문사와 의문 종결어미가 포함된 발화는 완전한 형태의 의문문으로 종결되기보다는 질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요청문이나 자신이 궁금함을 진술하는 문장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또한 많은 데이터에서 불완전 문장을 찾아 볼 수 있었고, 질문이라는 담화표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했지만 사실상 내용은 질의가 아닌 경우도 존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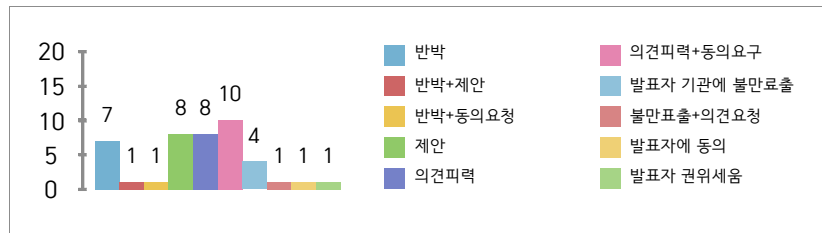
3.2.2 내용

내용에 대해서는 청중질의가 수행하는 실제 기능과 결속성 표지의 사용, 반복 및 어휘 사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기능면에서 100건의 청중질의를 순서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간접화행을 보이고 있었다.

발표 내용에 대한 반박이 7건, 반박을 한 후 제안을 하는 것이 1건, 발표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한 후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 1건, 발표 내용이나 해당 주제에 관련해 제안을 하는 것이 8건, 자신의 의견을 단순 피력하는 것이 8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뒤 이에 대해 발표자가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10건, 발표 내용이나 발표자가 아니라 발표자가 대변하는 기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4건, 발표자가 대변하는 기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 1건, 발표자의 발언에 동의할 것을 표하는 것이 1건, 발표 내용이나 주제와는 무관하지만 발표자의 권위를 세

위주기 위한 것이 1건으로 총 42건의 발화에서 상당히 다양한 기능의 간접화행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2: 간접화행의 종류〉



<예11>

어떤 울타리 치기를 넘어서 공동체를 만들자는 주장은 새로운 울타리 치기가 아닐까요.(『크랙 캐피털리즘』 저자 홀러웨이 화상강연회, 2013년)

<예12>

질문 두 가집니다. 첫째...중략...둘째 질문은 코발트가 방출한 방사능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 폭탄이나 프루토늄 폭탄보다 300이나 350배 더 강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하냐고 할 것 같으면 6.25전쟁시 맥아더가 한반도에 인민군과 중공군의 남하를 억제하기 위해...중략...라고 하는 미국 워싱턴의 미국 내셔널 레코드 센터의 비밀문서가 노출된 바가 있습니다...생략(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일본원전사고 영향과 대응방향 강연, 2011년)

<예13>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강의 하실 때 개성공단 말씀하셨는데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성공단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건 이게 이제 민간이건 관이건 북측하고 인제 협의를 하고 그러면 북측에서는 바로 그러면 며칠 안에 답변이 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통일부는 한번 가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육 개월 이렇게 답변이 안와요...중략...그래서 장관님이 재직하실 때 북측하고 이렇게 접촉도 하시고 그랬는데 과연 그 통일부에 있는 분들이 과연 그 의지가 어떤지 그러한 것들 좀 한번 얘기를.(남북정상회담 5주년 기념 전통일부장관 강연회, 2012년)

<예11>에서 <예13>은 모두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기능은 질의의 형태를 이용한 간접화행의 구현이다. <예11>은 ‘-니까요’라는 의문 종결어미를 사용하지만, 발화의 목적은 발표자의 주장에 반박을 하는 것이고, <예12> 역시 발화 도입부에 ‘질문이 있다’는 표지를 제공하여 궁금한 것을 묻겠다는 발화의 방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지만 실제 기능은 한반도 핵 상황과 관련해 질문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다⁷⁾. 한편, <예13>은 통일의 전망과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 중 잠시 언급된 개성공단에 대해 발표의 맥락과는 무관하게 청중 개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통일부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처럼 간접 화행을 수행하는 경우 의문문의 형식을 갖추었어도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통역사를 포함한 청자는 발화의 내용과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실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해야만 한다. 어려움을 더하는 것은 <예12>와 <예13>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회의의 발표 내용을 벗어나는 경험이나 정보 등이 포함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질의에서는 청자와 화자가 일정 범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 청중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종사자인 반면 통역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통역사는 출발어 발화의 이해에 더욱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예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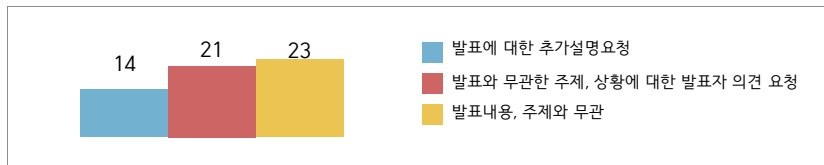
그 우리가 웨스틴 하우스를 인수를 할려면은 현재 기술의 자립화 가능성,
그리고 두 번 째는 리사이클링의 한미 원자력 협정이 중요한데 그에 대해
선. (한국 원자력연구소장 한국핵발전사 강연, 2010년)

궁금한 것을 묻는 순수 의문문의 경우에도 <예14>에서와 같이 통역사만이 공유하지 못하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는 많다. <예14>에서 질문자는 자신을 소개조차 하지 않았으나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질문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

7) 해당 회의의 주제는 일본 원전사고이며, 발표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예12>의 질문은 강연 내용과 무관하고 발표자는 코발트탄의 위력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님. 질문자인 청중은 해당 질의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보여주고 핵보다 코발트 탄의 폐해가 더 클 수 있음을 암시.

며, 질문 내용 역시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웨스틴 하우스’, ‘원자력 협정’의 진척 상황 등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순수 의문문 58건에서도 발표된 내용 자체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자의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것은 14건에 불과했고, 발표 내용과는 무관하게 주제나 관련 상황에 대해 발표자가 알고 있는바 또는 발표자의 의견을 묻는 것이 21건, 해당 주제나 관련 상황과 무관하게 것을 묻는 경우가 23건으로 해당 발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표3: 순수 의문문의 기능〉



기능 외에 내용 측면에서 통역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중 하나는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논리의 전개로, 대표적으로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결속성 장치인 접속사가 잘못된 사용과 자기 수정을 위한 반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예15>

그런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던 게 항상 성공, 성공 하는데 성공 다음이 뭐가요.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걸 성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보고 그래야 똑같은 실패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보화 촉진하는 사업이 아이티를 결합하는 농업이 결합이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고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업입니다.(농식품 분야 정보화 촉진토론회, 2011년)

분석한 데이터에서는 접속사가 화자의 정돈된 논리를 드러내주는 표지라기 보다는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필러로 사용되어 전후 맥락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통역 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흔히 동일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 통역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거

나 이해가 미흡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을 것을 생각되지만 데이터의 발화 구조를 분석해 보면 오히려 통역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16>

사실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통일을 했지 않느냐 그 베트남도 했지 않느냐 ...중략...그래서 이런 걸 전문가들이 정말 정립을 해서 이런 걸 정말 논문을 쓰실 때 총체적인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위상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승만 박사가 구축했던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했다 베트남은 비록 통일은 했지만은 잘못 된 공산주의 철학 때문에 통일은 했지만은.. 생략(2차 우남 학술대회, 2012년)

<예16>의 화자는 발언을 하면서 일부 누락된 정보가 있거나 논리적으로 공백이 존재함을 깨닫게 되면 이를 메우기 위해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데, 통역사가 이미 해당 부분에 대한 도착어 발화를 생성하고 있는 중이라면 핵심 성분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도착어 발화가 길어지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논리 표지의 어색한 사용이나 반복은 구어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구어에서 화자는 자신이 말하는 바의 요점을 기억 속에 붙잡아 두기 위해 이미 말한 것을 다시 풀어 설명하고 고쳐나가는 경향이 있고(한재영, 박지영, 현윤호, 권순희, 박기영, 이선웅 2008: 59), 명제간 의미나 논리를 나타내는 상위언어적 표지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명제간 상호관계가 모호해지고 화자가 발화 내용 자주 교정하게 된다(강지혜 2004: 26-53).

내용 차원에서 청중의 질의에 사용되는 어휘나 표현 역시 부정확하거나 화자 개인화된 표현의 사용으로 인해서 출발어 발화를 이해하고 도착어로 발화를 생성하는데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착어인 영어로 해당 표현을 어떻게 통역할 것인가가 일차적인 고민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상 <예 17>과 같이 발화자에 따라 관용어로 굳어진 비유적 표현 외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주술 호응을 맞추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경우 출발어 발화를 이해하는 것에 더욱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예17>

모두 다 인제 여성들이 화합과 또 인제 비빔밥처럼 잘 버무려지는 것도 여성의 몫입니다...중략...선생님 꼭 이 시대에 우주적인 파동이나 역사적인 일들이 저희 여성들이 꼭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정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지하 강연회, 2012년)

살펴본 바와 같이 청중질의가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세팅은 궁금한 사항을 묻는 것을 기본적인 발화 목적으로 하지만, 많은 경우 청중질의는 불만 표출이나 의견 제시 등 여타 기능의 수행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청중질의는 미리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발화이기 때문에 논리의 표지나 전개가 부정확하거나 모호하고 반복이 자주 발생하는 등 구어의 특징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고, 공식석상에서 이루어지는 발화임에도 어휘나 표현에 있어 화자의 개인화된 것을 자주 찾아 볼 수 있었다.

청중질의가 갖는 특징을 형식과 내용으로 분석해본 결과 동시통역 수행의 관점에서는 이를 보다 원활하게 통역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먼저, 담화표지인 의문사와 의문종결어미가 한국어와 영어에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평서문과 부가의문문을 함께 사용하는 등 의문의 담화표지를 영어 도착어 발화 뒷부분에서 처리하는 전략이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석에서 언급된 사례 중 “우리 IT를 이끄는 데 좀 역할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의 경우 “Are you willing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leading the nation's IT industry? 와 같이 동사를 전치시키는 것이 완전한 형태가 되겠으나 ‘-지’의 의문종결어미가 문미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도착어 문장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Leading the nation's IT industry is an important role for you, isn't it? 또는 “Leading the nation's IT industry is an important role for you. Are you willing to do so? 와 같이 평서문과 부가 의문문의 결합이나 평서문과 별도의 의문문을 결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중질의가 요청문 형태인 경우, 특히 질의자인 청중을 낮추거나 상대를 높이는 등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발화의 공손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한 바와 같이 청중질의의 간접화행이 반박, 반박 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하기 위한 것 등의 경우 공손성을 유

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분석에서 언급한 사례 중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경우 “If you have thought about it, please share it with us 라거나 “If that issue has been thought about, it would be kind if you share it 과 같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통역이 가능하다. 사실 공손성을 보존함에 있어서는 그 방법이 어려운 것보다는 공손성을 목적으로 한 표현이 청중질의의 명제, 내용에 직접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발화의 주요 요소임을 인지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 외에도 청중질의의 특징으로 분석된 접속사 등 결속성 표지의 부정확한 사용이나 유사 내용의 반복 등은 출발어 발화를 그대로 따라 통역하기 보다는 해당 접속사 부분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나 유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노력 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메모리에 자원을 더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정제된 텍스트 뿐 아니라 토론이나 일상적 표현이 담긴 인터뷰 등 통역 연습을 위한 텍스트의 종류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청중질의는 불완전 문장이 많고 특히 주성분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간접 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발표나 해당 회의의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가 언급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배경지식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맥락을 파악하고 발화의 내용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출발어 발화로서의 청중질의가 갖는 특징과 이로 인해 동시통역상의 고려요인은 특히 학생이나 전문 통역사로의 입문을 앞둔 초보 통역사에게 더욱 유의미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동시통역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서 출발어 발화가 가진 특징에 관심을 가지고 청중의 질의를 대상으로 이를 분석해보았다. 청중질의는 통역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지지 않으며 많은 통역사가 어려움

을 겪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발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통역 수행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기 위한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중질의는 형태와 내용 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도착어 발화를 생성하면서 동시에 출발어 발화를 이해해야 하는 동시통역에서는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고 출발어 발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돈된 텍스트 뿐 아니라 구어 특성이 보다 두드러지는 발화에 대한 노출을 늘리고, 화자가 제시하는 담화표지나 문장의 형식이 아닌 맥락에 따른 추론 연습을 시행하며 유려하지 않은 논리 전개를 이해하는 연습을 통해 예측 능력을 강화하는 등 청중질의를 통역하기 위해 특히 학생이나 초보 통역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통역하기 어렵거나 난해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출발어 발화의 어떤 측면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인지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발화의 속도나 발음 등으로 인한 통역 상의 어려움을 제외하였으므로, 향후 연구는 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나아가 분석한 출발어 특징에 따른 통역사의 전략을 수집·검증한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04) 『통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고은숙 (2011) 『국어 의문법 어미의 역사적 변천』, 서울: 한국문화사.
 김명희 (2005) 「국어 의문사의 담화표지화」, 『담화와 인지』 12(2): 41-63.
 남기심 (2011)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박영순 (1991) 「국어 의문문의 의문성 정도에 대하여」, 『국어의 이해와 인식』
 서울: 한국문화사.
 박혜경 (1987) 의문문의 형태와 의미,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정목 (1987) 『국어 의문문 연구』, 서울: 탑출판사.
 송창선 (2010) 『국어 통사론』, 서울: 한국문화사.
 이영민 (1998) 『국어 의문문의 통사론』, 서울: 보고.

- 이익섭, 채완 (1999) 『국어문법론강의』, 서울: 학연사.
- 이한민 (2010) 「한영의문문 형식의 간접화행 연구」, 『담화와 인지』 17(2): 89-118.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한재영, 박지영, 현윤호, 권순희, 박기영, 이선웅 (2008) 『한국어 문법교육』, 서울: 태학사.
- Chernov, Ghelly V. (2004) *Inference and Anticipation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Daró, Valeria (1994) 'Non-linguistic factors influencing SI' in Lambert, S. & Babara Moser-Mercer, B. (eds), *Bridging the Gap: Empirical Research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49-271.
- De Bot, Kees (2000) 'Simultaneous interpreting as language production' in Dimitrova, B.E. & Hyltenstam, K., *Language Processing and Simultaneous Interpreting*.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65-88.
- Gile, Daniel (1995)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_____ (1997) 'Conference interpreting as a cognitive management problem' in Dank, J. H., Shreve, G.M., Fountain, S.B., & Mcbeath, M.K. (eds), *Cognitive Processing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London: Sage Publication. 196-214.
- Dillinger, Mike (1994) 'Comprehension under interpreting' in Lambert, S. & Babara Moser-Mercer, B. (eds), *Bridging the Gap: Empirical Research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55-189.
- Pöchhacker, Franz (2004)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London: Routledge.
- Searle, John (1969) *Speech A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eber, Killan G. (2001) 'Intonation and Anticipation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Cahiers de Linguistique Fran aise* Vol. 23. 62-97.
<http://clf.unige.ch/display.php?numero=23&idFichier=19> retrieved on Mar.

23, 2013.

Setton, Robin (1999)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 Cognitive-pragmatic Analysi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Van Besien, Fred (1999) 'Anticipation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Meta*, Vol. 44(2). 250-259.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부록) 데이터 수집 대상 회의

회의명	일시	회의명	일시
미래비즈니스 포럼	2012	2012 중증외상센터설립 국제심포지엄	2012
이광희 저널 1주년 기념포럼 '양극화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2011	2012 오픈소스SW라이선스 인사이트 국제 컨퍼런스	2012
CTO 황장규 창조포럼 특강	2011	미래한국 국민연합지도자 포럼	2011
노동운동포럼 "사회주의의 현재와 과거"	2012	환경운동연합 초록시민강좌	2012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포럼"일본 원전사고 영향과 대응방향"	2011	정책토론회, "지역아동센터와 사례관리, 진단과 모색"	2012
김지하 강연	2012	계명경영특강, "역사에서 만나는 경영"	2009
『봉기』저자 출간 기념회	2013	YTN 재외국민 참정권 공청회	2012
10.4 남북정상회담 5주년 기념 이재정 전, 일부장관 강연회	2012	이화학술원 교수포럼, 다원지능 최재천 교수	2012
이 시대 리더와의 만남, 김선옥 이대 총장		제9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2010
노벨화학상 수상자 콘버그 교수 특강, "미래 과학 꿈나무들을 위한 유전자와 노벨상 이야기"	2010	공간 문화의 날 기념 GMP 상해 지사장 특강 "시민과 소통하는 교통문화 공간 디자인"	2012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 촉진토론회	2011	"크랙 캐피탈리즘 저자 출간기념회"	2013
한국경제발전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 경제 개발계획의 평가와 재해석"	2011	제176차 창조포럼, "대한민국 현대사의 올바른 이해"	2011
성균관대 초청 지경부 홍석우 장관 강연	2012	상림숲 활용방안 토론회	2012
푸틴의 재집권과 러시아 미래	2012	지경부 장관 초청 한경미래니엄조찬포럼 세미나	2012
한국경제 연구원 안보 세미나	2011	라면왕 이철호 특강	
광화문문화포럼 대한변호사회회장 '사법개혁의 방향' 강연	2010	한국대학총보협의회 교과부 이주호 장관 강연	2013
2011 세미나 헤리티지 토모로우 프로젝트 한옥과 한옥사이	2011	6월 항쟁 25주년 기념 학술대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조건과 경로"	2012
외교안보포럼 한국 원자력연구소장 발표 "한국핵발전사"	2010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회장, 한국어판 출판 기념회	2011
유영숙 환경부장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특강	2012	한국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토론회	2012
2차 우남 학술회의	2012	국민통일기금조성전략 세미나	2011
"삼성전자,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토론회	2013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공동창립자 강연	2009
'확신의 함정' 저자와의 대화	2012	정관현 명사 특강	2012
제1회폐교협업의 날, "소아와 폐교협업" 특강	2012	GPFKOREA 한반도 평화세미나	2012
고성국 선거특강 "법이 숨방망이라고?"	2011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반성적 검토	2011
통&talk 컨퍼런스: 전통 문화의 아주 새로운 이야기	2012	제 18회 선불교, 국학연구원국제학술대회	2012
AR 디자인 포럼	2011	황석영 저자와의 대화	2008
환경운동연합 초록시민운동 강연	2012		

[Abstract]

**Discussing Questions From the Floor from the
Simultaneous Interpreter's Perspective**

Oh, Mi-hyung
(Ewha Woman's University)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I) requires various cognitive efforts to be made all at once, such as listening, comprehension, target discourse production, short-term memory, and coordination. It can be performed successfully when the interpreter's capacity exceeds the capacity required for the process.

Many factors affect how much capacity the interpreter can exploit and how much is required at any given moment during SI. Source text (ST) is obviously one of such factors, an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its characteristics. Grasping the various traits of ST can help the interpreters to better anticipate what is coming, and hence, to better manage the cognitive load demanded during the SI process.

The data consisted of 100 questions posed by audiences at various conferences. An analysis of their forms and contents shows that questions from the audience share some common traits. Discourse markers such as interrogatives and/or interrogative final endings can often be misleading, as the discourse function itself is not to ask a question, but to counter-argue, blame, and/or save face. When the discourse function is purely to ask a question, the question frequently comes in the form of request or statement. This finding also reveals characteristics of spoken language, such as the use of unfit conjunction, repetition, and use of personalized collocations and expressions.

All these traits of ST can hamper the interpreter's comprehension in the SI process. However, understanding them can help the interpreters, especially

student or novice interpreters, to correctly anticipate what is coming and to implement an effective strategies to manage the SI process early on.

▶ Key Word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ource text analysis, interrogatives, indirect speech act

오미형

이화여자대학교 시간강사

mihyung.oh@gmail.com

관심분야: 통번역교육, 텍스트 분석, 영상번역

논문투고일: 2013년 4월 25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6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6일